

청소년의 자율 협력적 독서실행에 따른 독서유효성 효과 연구*

A Study on the Reading Effectiveness by Collaborative Reading Practice of Teenagers

김 명 희(Myung-Hee Kim)**

조 현 양(Hyun-Yang Cho)***

< 목 차 >

I. 서론	2. 협력적 독서실행 프로그램 운영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IV. 연구의 설계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모형
II. 이론적 배경	2. 측정도구
1. 청소년의 독서	V. 데이터 수집 및 분석
2. 자율 협력적 독서실행	1. 데이터 수집
3. 독서유효성	2. 데이터 분석
III. 협력적 독서실행 프로그램 구성과 운영	VI. 결론 및 제언
1. 협력적 독서실행 프로그램 구성	

초 록

이 연구는 청소년의 자율 협력적 독서실행 모형을 제시하고 협력적 독서방식이 청소년의 독서유효성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하여 전국 8개 지역, 61개 중·고등학교에 68개 독서클럽을 조성하고 연구집단을 독서미흡집단, 독서양호집단, 독서혼합집단으로 구분하여 청소년의 자율 협력적 독서실행을 4개월 동안 실시하였다. 독서유효성의 설문지를 제작하여 사전과 사후검사를 실시하고 SPSS 통계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청소년들의 독서유효성은 긍정적으로 향상되었으며 독서미흡집단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의 독서행동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으며 독서유효성의 변화는 독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키워드: 협력적 독서, 독서효과, 청소년 독서실행, 독서클럽, 자율적 독서활동

ABSTRACT

This study was to present a model of cooperative reading practice and verify reading effectiveness on youth. For this purpose, 68 reading clubs were established in 61 districts and 8 high schools. The research groups were classified as the poor reading group, the good reading group, and the mixed-skill reading group. The cooperative reading groups were carried out for four months. We developed a questionnaire on Reading effectiveness conducted it pre- and post-test, and analyzed the results through the SPSS statistical program. We found that there was a positive change in the reading effectiveness of youth and overall—the highest effectiveness was found in the poor reading group. In addition, there was a positive change in the reading behavior of youth. The change of reading effectiveness was found to affect reading behavior.

Keywords: Collaborative reading, Youth reading, Reading effectiveness, Reading club,

* 이 논문은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중 일부를 발췌 요약 수정한 것임

** 도서문화재단 씨앗 연구원(mkim63@naver.com) (제1저자)

*** 경기대학교 문헌정보학과교수(hycho@kgu.ac.kr) (교신저자)

•논문접수: 2018년 5월 17일 •최초심사: 2018년 5월 28일 •게재확정: 2018년 6월 18일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9(2), 79-104, 2018. [http://dx.doi.org/10.16981/kliss.49.201805.79]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청소년기는 다른 어떤 성장 시기보다도 독서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강조된다. 하지만 오늘날 청소년들은 범람하는 다양한 매체에 대한 유혹을 이기고 혼자서 책을 읽는 것을 점점 어렵게 하고 있다. 특히 전자매체의 발전은 굳이 글을 읽지 않더라도 유튜브에 올라온 동영상 등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획득하도록 한다. 이러한 환경은 청소년의 독서에 대한 의존도와 흥미를 저하시키며, 책맹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서교육 현장은 청소년들에게 무슨 책을 읽게 할 것인가에 집중되어 있다. 독서는 독자가 스스로 책을 읽고자 할 때 가능하다. 청소년의 독서를 위한 방안은 청소년들이 어떻게 하면 스스로 책을 읽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우선되어야 한다.

최근의 독서 방식은 혼자 읽기에서 함께 읽기로 변모해 가는 경향이 있다. 함께 읽기는 ‘역지로 하는 책읽기가 아니라 즐거운 책읽기’라는 모토와 함께 사회적인 차원에서 독서문화 운동으로 확대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2). 기존의 독서는 개인적인 행위로서 혼자서 읽고 혼자서 책의 내용을 이해하고자 했다면, 지금의 함께 읽기는 여럿이 같은 책을 읽고 책 이야기 나누기 등을 통해 재미와 의미를 동시에 얻고자 한다. 즉, 함께 읽기는 책을 토대로 사람들과 어울리는 즐거움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독서 방식은 책읽기에 재미를 느끼지 못하여 혼자서는 책을 읽지 않는 청소년들에게 독서행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함께 읽기는 협력적 독서 형태를 지니며, 여럿이 동일한 책을 읽고 협력적으로 텍스트의 의미를 재구성해 나간다. 최근에는 일부 독서교육 현장에서도 모둠별 독서활동, 북클럽, 독서동아리 등 독서공동체를 조성하여 독서토론을 중심으로 협력적 독서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국내외 연구들은 협력적 형태의 독서활동이 교사 중심의 독해, 독후감 쓰기 등의 기능적인 독서교육을 통한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독서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협력적 독서에서의 토론 활동은 학생들의 읽기를 더욱 심화시켜 주며 읽기능력 및 태도 등에 효과적임을 밝히고 있다. 백혜선(2014) 등 소수 연구자들은 방과 후 또는 자율적인 독서동아리 모임을 통해 협력적 독서토의에 대한 효과를 밝히고 있지만, 도서선정 등이 교사의 제한된 추천 속에서 이루어지거나 연구 대상이 소수 인원인 학업 우수자로 구성되어 있어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적인 요소들이 많다. 이렇듯 협력적 독서와 관련된 연구들은 독서토론 또는 토의에 집중되어 있어 청소년의 독서실행 측면에서의 연구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특히 청소년의 독서 문제가 스스로 책을 읽지 않는다는 점인 것을 고려해 볼 때,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모여 즐거운 독서를 실행할 수 있는 협력적 독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협력적 독서실행의 모형을 제시하고 실제적인 운영을 통해 청소년의 자발적인 독서행동 촉진에 영향을 주는 독서유효성의 효과를 밝히고,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독서 증진 방안으로 자율적인 협력적 독서실행을 제안하는 데 있다.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청소년의 자율 협력적 독서실행이 자발적인 독서행동 촉진에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청소년의 자율 협력적 독서실행이 청소년의 독서유효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청소년의 독서상태에 따라 청소년의 독서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청소년의 독서행동 변화가 청소년의 독서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이 연구에서는 자율 협력적 독서실행 모형을 개발하여 전국 8개 지역, 61개 중·고등학교의 68개 독서클럽을 선정하고 4개월 동안 운영하였으며, 자발적인 독서행동 효과 검증을 위해 독서유효성에 대한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다음으로 연구 집단을 연구 대상자의 사전 독서상태(독서율과 독서시간)에 따라 ‘독서미흡집단’, ‘독서양호집단’, ‘독서혼합집단’으로 구분하였다. 마지막으로 작성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3집단을 협력적 독서실행의 사전과 사후로 나누어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통계 분석함으로써 독서유효성 변화 및 자발적인 독서행동의 변화의 관련성을 검증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청소년의 독서

청소년기는 초기 문식성 교육을 습득한 상태로 자립형 독자로 성장해 가는 시기다. 독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가지게 되면서 부모, 학교가 권장하는 도서에 대해 순응하지 않고 자신의 취향에 따라 책을 읽고자 한다(류보라 2012, 148-149). 오늘날 이러한 청소년의 변화된

독서형태는 기존세대와 충돌로 나타나기도 한다. Davila와 Patrick(2010)은 아동들의 독서 양상을 검토한 결과 전통적인 경전(cannon)이 아닌 잡지, 만화책, 웹사이트를 즐겨 읽는다고 설명하며, 이러한 책들은 교사나 도서관 사서에게는 적절하지 않은 책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다고 밝히고 있다. Bintz (1993)는 많은 청소년 독자들이 성인의 지정 도서 및 교사가 선택해 주는 책에 대해 흥미를 잃었으나, 독서 자체에 대해서는 흥미를 잃지 않은 것으로 보고 청소년 독서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성인의 기준으로 청소년을 위한 독서자료를 선정하여 억지로 읽게 하는 점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청소년의 특징과 독서 양식의 변화를 인정하는 청소년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독서에서 필요한 것은 무슨 책을 읽도록 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독서를 실천하려는 의지 및 독서 습관을 키워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독서의 정의적 부분으로 자율성과 즐거움에 기반하고 있다.

독서를 즐기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독서가 즐거운 경험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점이다. 독서를 즐긴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놀이를 즐기는 심리와 유사한 것으로 자유로움을 의미하며 재미가 수반되어야 한다(김성일 1996). 아이들이 스스로 자진하여 참여하는 것은 또래와의 놀이로, 배움도 이러한 형태로 지녀야 한다고 보았으며, 아이들은 일단 무언가에 흥미를 갖게 되면 자발적으로 참여하려는 의욕을 가지게 된다(하시모토 2012, 25). 즉, 즐거운 독서는 아이들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시작되며 놀이의 형태로서 또래 집단과의 어울림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일부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즐거운 독서경험을 사회적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독서로 설명하고 있다. 청소년의 사회적 맥락에 의한 독서 형태는 수업시간에 이루어지는 학습공동체에서의 학습과는 별개의 다양한 독서공동체를 의미한다. 학습과는 별개인 독서공동체는 교실에서 나름의 독서 취향으로 모인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추리 소설이나 판타지, 또는 만화를 읽는 마니아 그룹을 지칭한다. 이들 집단의 학생들은 협동적인 태도를 지니고 유대감을 발휘하며 교사에게 거부될 경우에는 서로 분노의 감정을 공유하는 등 특정 작품을 통해 일탈적 세계에 몰입하는 경험을 한다(최숙기 2006).

이처럼 청소년들은 학습과는 별개의 자유로운 독서공동체를 통해 자신들이 읽고 싶은 책들을 같이 읽으면서 함께하는 즐거움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청소년들이 혼자서하는 독서보다는 함께하는 독서 방식을 즐기고 있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2. 자율 협력적 독서실행

협력적 독서는 비고츠키(Vygotsky)의 연구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그는 언어가 사고의 발달에 절대적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그의 주장은 협력적 독서의 조직과 구성의 기반이 되고 있다. 특히 사고의 발달과정에서 언어의 역할, 유능한 타자의 역할, 사회적 상호

작용에 의한 내면화 등은 협력적 독서실행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것들이다. 이러한 비고츠키의 관점은 독서교육이 기존의 주입식 형태에서 벗어나 동료와의 상호작용이 가능한 모듈별 독서토론 또는 토의를 활성화하는 데에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Vygotsky 1978).

학교에서는 독서토론 등의 협력적 독서실행을 통해 학생들이 텍스트의 내용을 보다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하면서 독서효과를 높이고자 한다. 하지만 협력적 독서실행은 운영주체에 따라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차이점은 <표 1>과 같다.

<표 1> 운영 주체에 따른 협력적 독서실행의 차이점

교사 주도의 협력적 독서실행	학생 주도의 협력적 독서실행
독서수업 시간	독서수업 시간외의 자율 동아리 시간 등
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모듈 구성	자발적인 참여 학생으로 모듈 구성
교사 지정 도서 중에서 선정	참여 학생 또는 교사의 추천 도서 중에서 선정
전체 또는 부분 읽기	전체 읽기
토론 형식 전체 도입토론→모듈별 토론→전체 마무리토론	대화 형식 소그룹 토의 또는 이야기하기
텍스트 내용에 한해 토론하기 : 주제를 정해 질문을 만들고 토론하기	텍스트 내용을 토대로 확장된 이야기하기 : 자신의 생각, 경험 등을 나누기
쓰기 활동 필수	쓰기 활동 자율
모둠독서활동, 모둠독서토론, 북클럽, 독서클럽, 독서동아리 등의 명칭으로 활동	모둠독서활동, 독서클럽, 독서동아리, 문학서클, 비경쟁독서토론 등의 명칭으로 활

교사 주도의 협력적 독서는 독서지도 수업 시간에 학급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모듈을 구성하여 전체 또는 부분 읽기, 토론, 쓰기 중심으로 진행되며, 도서는 교사의 지정 도서 중에서 선택한다. 교사는 전체 도입 토론과 마무리 토론 시간을 조정하여 진행하며, 학생 중심의 활동은 모듈별 토론 시간에 이루어지며, 질문 및 토론 주제는 교사가 요구한 텍스트 내용에 한해 대부분 결정된다. 이러한 교사 주도의 협력적 독서는 모둠독서활동, 모둠독서토론, 북클럽, 독서클럽, 독서동아리 등의 다양한 명칭으로 독서지도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다(강미 2010).

학생 주도의 협력적 독서는 대부분이 자율 동아리 시간에 진행되며, 자발적인 참여자로 구성되어 있다. 참여 학생들은 동료와 함께 또는 교사의 추천도서 중에서 책을 선정하여 전체적으로 읽고 토론 형식에 구애받지 않으며, 자유롭게 책의 내용을 토대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한다. 또한, 쓰기 활동은 자율적으로 수행한다. 모둠독서활동, 독서동아리, 독서클럽, 비경쟁독서토론 등의 명칭으로 활동하며, 학생자율 독서활동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다(백혜선 2013).

협력적 독서 형태는 독서공동체를 조성하여 독서활동이 이루어지지만 운영 주체에 따라 활동 내용과 운영 방식은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명칭이 혼재되어 사용되거나 동일한 형태로 운영되지만 다양한 명칭으로 지칭되기도 한다. 이 연구에서의 자율 협력적 독서실행은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자율 협력적 독서실행은 책임기라는 공동의 목적을 가진 또래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독서공동체를 조성하고, 서로의 즐거운 독서활동을 위해 친구들과 함께 협력적으로 책임기를 실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3. 독서유효성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독서행동에 영향을 주는 독자의 내적인 반응을 알아보기 위해 독서유효성 이론을 토대로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 독서유효성은 정대근(2014)이 활동유효성 및 조직유효성의 이론들을 도입하여 독서 측면에서 개념을 정립하고 구성요인을 설정하여 독서활동의 성과에 대한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 독서유효성은 개인이 독서활동을 통해 얻어지는 독자의 내적인 평가로써, 독서의 정의적 영역에 대한 효과를 개인의 주관적 표현에 의해 나타내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독서유효성의 구성요인으로 독서지속의지, 독서몰입, 독서만족을 제시하였으나 그의 연구에서 제시한 독서유효성은 조직 및 활동유효성에 국한되어 있어 독서활동에 대한 독자의 내적인 평가로서는 충분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독서유효성을 독서활동에서 얻어진 청소년 독자의 자발적인 독서행동의 향상으로 보고 이와 관련된 독서의 내재적 동기 이론을 포함하였다.

독서에서 독자의 내재적 욕구는 독서행위에 대한 내재적 동기 상태를 의미는 것으로, 누군가의 통제 없이도 스스로 원해서 독서 행동을 한다고 보는 것이다. 관련된 구성요인은 독서 동기 이론에서 살펴볼 수 있다. Wigfield와 Guthrie(1996)는 독서동기 영역을 3개의 범주로 나누고 11개의 하위 요인들을 제시하였는데 그 중에서 호기심, 도전감, 독서몰입, 독서중요성을 내재적 동기 요인으로 밝혔다. 이순영(2010)은 청소년 독자 연구를 통해 자아효능감, 자율성, 기대, 호기심, 독서에 부가하는 가치 등을 독자의 내재적 동기의 구성요인으로 밝혔다. 박영민(2007)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독서동기 연구를 통해 인정-중요성, 사회적 상호작용, 몰입, 효능감, 흥미를 주된 구성요인으로 밝혔다. 또한, 이병기(2015)는 독서동기의 내재화를 자기결정성 동기 이론으로 설명하였다. 이는 한 개인이 누군가의 통제를 받지 않고 주어진 상황에서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으로 보고 내적 동기화된 독자는 독서에 대한 도전감, 호기심, 즐거움 및 흥미로 책을 읽고자 하며 몰입독서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독서유효성의 구성요인과 관련된 독서의 내재적 동기 요인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독서유효성에서의 독서지속의지는 독서 목적을 이루고자 독서행동을 촉진하는 내재된 욕구로서 독서의 내재적 동기의 도전감, 호기심과 관련이 있다.

둘째, 독서유효성에서의 독서몰입은 저자가 창조해 낸 세계에 빠져드는 것으로서 독서의 내재적 동기와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셋째, 독서유효성에서의 독서만족은 독서에 대한 가치 인정과 태도로 설명하고 있으며, 독서의 내재적 동기의 독서효능감과 독서태도와 관련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독서효능감을 독서유효성의 구성요인에 추가하고 독서만족을 독서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 및 태도로 이해하고 구분한다.

Ⅲ. 협력적 독서실행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1. 협력적 독서실행 프로그램 구성

학교는 학생들이 모여서 독서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공간이다. 따라서 학교 안에서 청소년들이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며, 노는 기분으로 참여가 가능한 독서활동 모형의 구성을 제안하였다. 독서활동의 모형을 위해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및 사례조사를 통해 청소년의 독서활동에서 고려해야 할 점을 추출하여 다음과 같은 구성 원칙을 적용하였다.

첫째, 청소년의 자발적인 참여와 자율성을 기반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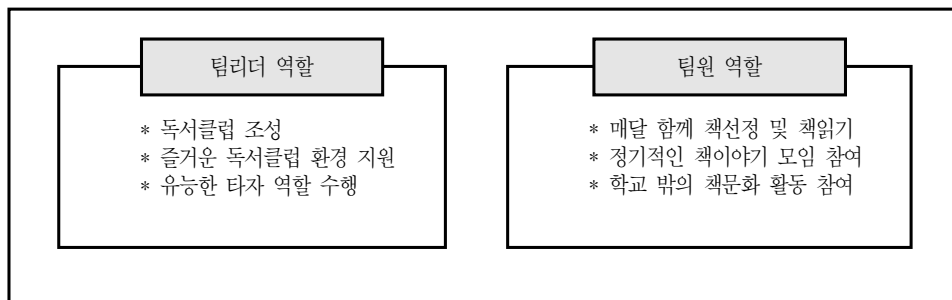
둘째, 청소년이 독서활동의 주체가 된다.

셋째, 또래 집단과의 어울림이 가능한 소규모 독서공동체를 조성하여 진행한다.

넷째, 즐거운 책임기가 가능하도록 물리적 환경을 지원한다.

다섯째, 독서활동은 학교 밖으로 확대한다.

청소년의 자율 협력적 독서실행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므로 교사의 도움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교사 1명과 청소년 학생 5~8명으로 독서실행 집단을 구성한다. 교사는 독서클럽 팀의 리더로서 팀리더로 지칭하고 학생들은 독서클럽 팀의 멤버로서 팀원으로 지칭한다. 청소년의 자율 협력적 독서실행 구성원의 역할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청소년의 자율 협력적 독서실행 구성원의 역할

팀리더는 독서지도 교사가 아닌 팀원 학생들의 자율적인 독서활동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선생님을 의미한다. 팀리더의 역할은 학생들이 또래집단과 어울리면서 협력적으로 독서실행이 가능하도록 독서클럽을 조성하고 독서환경을 지원한다. 독서클럽 운영을 위한 환경 지원에는 모임장소, 모임시간 확보를 의미하며, 팀원들이 선정한 책을 구입하여 전달하고, 모임시간에는 간식 등을 지원한다. 또한, 팀원들이 독서경험의 부족으로 인하여 책선정 및 책이야기 활동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에 조력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는 독서클럽 팀의 구성원으로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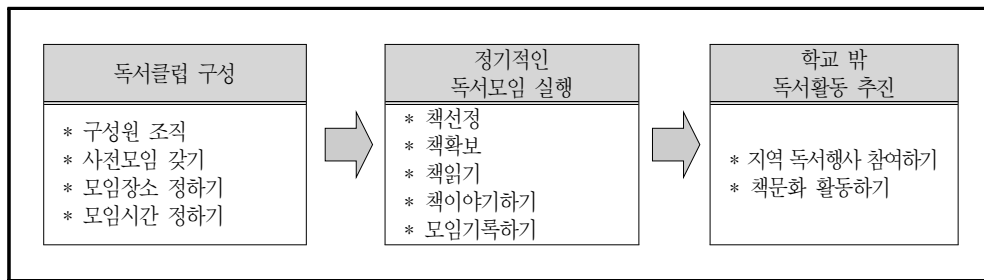
8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9권 제2호)

책 선정 과정 및 책이야기 활동 과정에 필요한 정보와 팁을 제공하며, 팀원 학생들의 협력적 독서실행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돕는다.

팀원의 역할은 독서클럽의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동일하게 읽을 책을 매달 1권씩 선정하여 읽고, 정기적인 책이야기 모임에 참여하여 자신의 생각 등을 이야기 하는 것이다. 또한, 학교 밖의 책 문화 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독서를 실천한다.

2. 협력적 독서실행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의 자율 협력적 독서실행은 <그림 2>와 같이 독서클럽 구성, 정기적인 협력 독서모임 실행, 그리고 학교 밖 독서활동 추진 등의 3단계로 나누어진다.



<그림 2> 청소년의 협력적 독서실행의 구성 및 활동 내용

첫째, ‘독서클럽 구성’단계에서는 청소년들이 협력적 독서실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교사가 환경 기반을 조성해 주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 구성원을 조직하고 사전모임을 통해 팀원들과 함께 모임시간 및 모임장소를 정한다. 구성원 조직하기에서는 구성원을 가능한 보통의 학생들로 조직한다.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유능한 학생들만으로 구성했을 경우에는 운영이 수월한 면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학생들의 참여가 어려울 수 있다. 또한, 구성원 조직에서는 학생들의 시간적 여유, 성실한 태도, 독서수준 등을 고려한다(박지혜 2016, 24).

둘째, ‘정기적인 협력적 독서모임’은 주 1회에 방과 후에 모여 책선정, 책읽기, 책이야기 나누기 등으로 이루어진다. 팀리더는 정기적인 모임이 가능하도록 장소와 시간을 확보해 주고 간식을 제공한다. 정기적인 협력적 독서실행의 핵심은 읽을 책을 선정하는 것이며, 함께 읽을 책은 매 달 팀원들이 협력하여 선정한다. 책선정 시에는 학교도서관, 지역도서관, 지역서점 등을 활용하여 충분히 책을 탐색할 시간을 가지되, 권장도서목록 등을 통해 책 제목만 보고 결정하거나 인터넷 서점 등의 광고 등을 통하여 개인적인 취향과 수준으로 책을 추천하는 것을 최소화한다. 책을 직접 보고 책의 내용, 두께, 난이도 등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정기적인 협력적 독서모임에서의 책읽기는 자유롭게 각자가 읽는다. 하지만 팀원들의 독서수준에

비해 다소 부담감을 주는 책이 선정되었을 경우에는 함께 모여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을 서로 도와가며 읽기를 시작한다. 협력적 독서는 책을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팀의 구성원들과 모여 이야기하기 활동으로 이어지므로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을 메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무엇을, 어떻게 메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거나 지시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각자의 입장에서 나누고 싶은 내용을 표시하거나 메모해 가면서 읽고, 그 내용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눈다(이선영 2008,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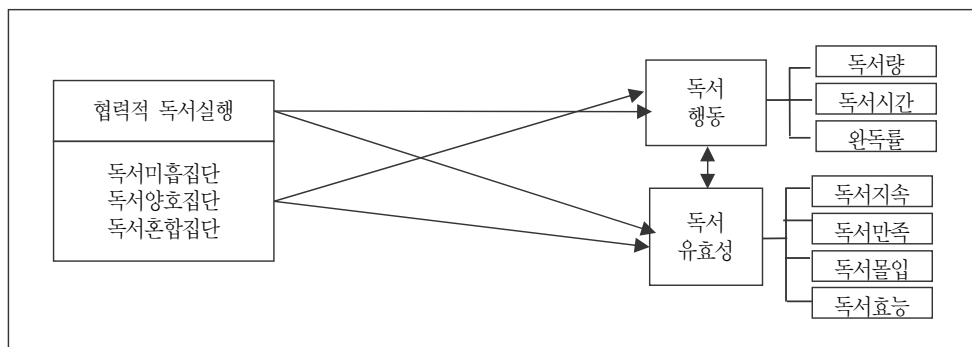
셋째, ‘학교 밖 독서활동 추진’은 독서활동을 학교 밖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매달 1회 또는 최소 1회 이상은 책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학교 밖으로 나가 독서활동을 진행한다. 지역 서점 또는 도서관 방문하기, 책과 관련된 영화, 연극, 뮤지컬 등 보러가기, 지역의 독서행사 참여하기, 문학기행 등 사전모임을 통해 계획을 세우고 추진한다.

IV. 연구의 설계

1. 연구 모형

이 연구는 학교에서 운영되는 청소년의 자율 협력적 독서실행이 청소년의 독서유효성과 독서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청소년의 독서상태 별로 구성된 집단의 차이에 대해 밝히기 위한 것으로, 청소년의 독서유효성의 변화에 따른 독서행동 변화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협력적 독서활동을 위한 집단의 구성은 2015년 국민독서실태조사에 나타난 학생들의 독서율과 독서시간을 기준으로 ‘독서미흡집단’, ‘독서양호집단’, ‘독서혼합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청소년의 독서행동 파악을 위해 독서량, 독서시간 및 독서완독률의 변화를 알아보고 독서유효성은 독서지속의지, 독서만족, 독서몰입, 독서효능감을 구성요소로 하여 사전과 사후의 변화를 비교하였으며, 독서유효성과 독서행동의 관련성을 파악하였다. 이 연구의 모형은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연구 모형

2. 측정 도구

설문지는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 5문항, 독서행동 경험 12문항, 독서유효성 3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독서행동 경험은 독서량, 독서시간, 독서완독률, 독서량만족도, 독서흥미요인, 독서방해요인, 독서장소, 독서분야별, 도서관선택정보원, 독서공동체경험여부에 관한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독서유효성 검사지 제작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개발하였다.

첫째, 정대근(2014)이 개발한 독서유효성 측정도구의 개념과 구성요소를 토대로 독자의 내재적 동기에 관련된 국내, 외 문헌 및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연구자가 독서유효성의 구성요인을 독서지속의지, 독서만족, 독서몰입, 독서효능감으로 추출하였다.

둘째, 구성요인 별 설문문항은 <표 2>에 제시된 문헌 및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연구자가 초안을 작성하였다.

<표 2> 독서유효성 설문지 개발을 위한 참고 자료

구성 요인	참고 자료
독서지속의지	이병기(2016), 정대근(2015), 안영이(2010), 김미숙(2008), 박영민(2007), Wigfield & Guthrie(1996)
독서만족	이병기(2016), 정대근(2015), McKenna and Kear(1990)
독서몰입	안영이(2010), 박영민(2007), 이순영(2006), Wigfield & Guthrie(1996)
독서효능감	최숙기(2009), 박영민(2007), Wigfield & Guthrie(1996)

셋째, 10년 이상의 현직 국어교사 2인과 사서교사 3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을 활용하여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 보완하였다.

넷째, 수정된 설문지로 중학생 15명과 고등학생 15명에게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다섯째, 예비조사 결과로 설문지의 신뢰도 및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여섯째, 독서유효성의 측정도구는 <표 3>과 같이 독서지속의지 8문항, 독서만족 8문항, 독서몰입 8문항, 독서효능감 6문항으로 총 3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표 3> 독서유효성 개념 및 문항

구성 요인	개념 정의	문항 내용
독서지속의지	독서목적을 이루고자 독서행동을 촉진하는 내재된 동기 상태	읽고 있는 책 소개
		책 공유
		도서관, 서점 이용에 대한 습관
		문제 해결을 위해 책 찾아보기
		흥미로운 책 찾아 읽기
		독서촉진을 위한 계획 세우기
		복잡한 책도 나의 방식으로 읽기
새로운 책에 대한 정보 찾아보기		

독서만족	독서에 대한 만족스러운 감정 및 태도 상태	독서시간에 대한 기쁨
		새 책을 입을 때 행복감
		교실에서 책 읽는 시간에 대한 선호
		독서칭찬에 대한 행복감
		독서행위에서 오는 기쁨
		책선물에 대한 행복감
		도서관, 서점 방문에 대한 희망
		다른 활동보다 책읽기 선호
독서몰입	책의 내용에 빠져 들어간 집중 상태	마음속으로 책의 장면 그리며 읽기
		이해되지 않으면 반복해 읽기
		책의 내용 상상해 보기
		책 속의 인물과의 친근감
		책을 읽을 때 생각하기를 즐김
		책을 읽다가 시간 가는 줄 모름
		중요한 구절을 기억하고자 함
독서효능감	독서에 대한 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독서를 더욱 잘하고자 하는 내적인 욕구 상태	책의 의미를 나만의 방식으로 읽기
		타인에게 책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인식됨
		내년에도 독서를 더 잘 하고자 함
		친구들보다 책을 더 잘 읽음
		유능한 독자에 대한 중요성 인식
		독서를 통해 많이 배우게 됨
독서로 나의 미래와 관련성 인식		

V.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청소년의 자율 협력적 독서실행이 독서유효성에 미치는 효과 및 독서행동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서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일반사항 및 독서행동의 상태를 설명하고 수집된 자료를 SPSS 19.0 통계 프로그램으로 통계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인터뷰의 내용 및 월별 활동일지 등을 참고하여 연구 대상자들의 독서행동 변화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1. 데이터 수집

가. 연구집단 구성

데이터 수집은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일반 사항과 연구 집단 별로 연구 대상자의 독서상태를 중심으로 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표 4>와 같다.

〈표 4〉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일반 사항 빈도 및 비율

구분		N(%)
학교 급	중학교	209(51.60)
	고등학교	196(48.40)
	합계	405(100.00)
지역	서울	42(10.37)
	부산	49(12.09)
	인천	43(10.62)
	대구	44(10.86)
	광주	32(7.91)
	청주	40(9.87)
	경기(성남, 용인, 구리)	80(19.75)
	강원(춘천, 원주)	75(18.51)
	합계	405(100.00)
독서 상태	미흡	240(59.26)
	양호	165(40.74)
	합계	405(100.00)

연구 대상자는 중학생 51.6%(209명)와 고등학생 48.4%(196명)로 구성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10.37%(42명), 부산 12.09%(49명), 인천 10.62%(38명), 대구 10.86%(44명), 광주 7.91%(32명), 청주 9.87%(40명), 경기 19.75%(85명), 그리고 강원 18.51%(75명)이다. 학생들의 독서상태 기준은 <2015 국민독서실태조사>¹⁾에서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의 평균 독서량과 독서시간을 기초 데이터로 하였다. 미흡집단은 한 달 독서량이 2권 이하이면서 일주일 독서시간이 1~2시간 미만인 중학생, 그리고 한 달 독서량은 1권 이하이면서 일주일 독서시간이 1~2시간 미만인 고등학생으로 구성하였다. 중학생은 한 달 독서량이 2권 이상이고, 일주일 독서시간인 3~4시간 이상일 경우와 고등학생은 한 달 독서량이 2권 이상, 일주일 독서시간이 1~2시간 이상일 경우 '양호'로 분류하였다.

연구 집단은 3개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독서클럽 팀원들이 독서미흡자로 구성된 집단을 '미흡집단', 독서양호자로 구성된 집단을 '양호집단', 독서미흡자와 독서양호자로 구성된 집단을 '혼합집단'으로 구성하였다. 연구 집단 구성은 <표 5>와 같다.

연구 집단은 독서클럽 팀 수의 경우에는 미흡집단이 35.29%로 24팀, 양호집단은 27.94%로 19팀, 혼합집단은 36.76%로 25팀으로 구성되었다. 집단별 학생 수는 미흡집단이 34.32%로 139명, 양호집단은 26.92%로 109명, 혼합집단은 38.76%로 157명으로 구성하였다.

1) 2015년 국민독서 실태조사에 의하면, 학생들의 평균 독서량은 중학생이 연 17.8권, 고등학생 8.9권이며 일주일 독서시간은 중학생이 2시간 20~50여분, 고등학생이 2시간 10~30여분으로 나타났다.

<표 5> 연구 집단 구성

구분		N(%)
팀 수	미흡집단	24(35.29)
	양호집단	19(27.94)
	혼합(미흡+양호)집단	25(36.76)
	전체	68(100.00)
학생 수	미흡집단	139(34.32)
	양호집단	109(26.92)
	혼합(미흡+양호)집단	157(38.76)
	전체	405

나. 연구 집단 구성에 따른 신뢰도 검증

청소년의 자율 협력적 독서실행에서의 연구 집단 구성에 대한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집단 구성(미흡, 양호, 혼합)에 따른 독서량, 독서시간, 사전 독서완독률에 대하여 일원 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유의성의 검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연구 집단 구성의 독서행동 검증

구분	N	M±SD	F값(p)	
한 달 독서량 ¹⁾	미흡	139	1.81±0.67 ^a	158.549* (.000)
	양호	109	3.79±0.75 ^c	
	혼합(미흡+양호)	157	2.54±1.09 ^b	
	전체	405	2.62±1.17	
일주일 독서시간 ²⁾	미흡	139	1.64±0.60 ^a	65.278* (.000)
	양호	109	2.86±0.78 ^c	
	혼합(미흡+양호)	157	2.32±1.05 ^b	
	전체	405	2.23±0.97	
완독률 ³⁾	미흡	139	2.90±0.97 ^a	16.430* (.000)
	양호	109	3.53±0.66 ^c	
	혼합(미흡+양호)	157	3.18±0.88 ^b	
	전체	405	3.18±0.90	

1) 5점 척도 (1점:거의 읽지 않았다, 2점:1권정도, 3점:2권정도, 4점:3권정도, 5점:4권 이상)
 2) 5점 척도 (1점:거의 읽지 않았다, 2점:1~2시간, 3점:3~4시간, 4점:4~5시간, 5점:5시간 이상)
 3) 4점 척도 (1점:반(50%)도 읽지 못했다, 2점:반(50%)정도 읽었다, 3점:대체로(80%이상) 끝까지 읽었다, 4점:항상(100%) 끝까지 읽었다)
 4) 같은 열상의 서로 다른 알파벳 a,b는 사후검정(Duncan)에 의해 유의적인 차이가 있음을 의미
 5) *p<.05

사전 독서량의 경우 미흡집단은 평균 1.81점, 양호집단은 평균 3.79점, 혼합집단은 평균 2.54점으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양호집단의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F값=158.549, P=.000). 사전 독서시간의 경우 미흡집단은 평균 1.64점, 양호집단은 평균 2.86점, 혼합집단은 평균 2.32점으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양호집단의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F값=65.278, P=.000). 사전 완독률의 경우 미흡집단은 평균 2.90점, 양호집단은 평균 3.53점, 혼합집단은 평균 3.18점으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양호집단의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F값=16.430, P=.000)

둘째, 협력적 독서실행에서 집단 구성 상태(미흡, 우수, 혼합)에 따른 사전 독서지속의지, 사전 독서만족, 사전 독서몰입, 사전 독서효능감에 대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유의성의 검증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연구 집단 구성에 따른 독서유효성 검증

	구분	N	M±SD	F값(p)
독서 지속 의지	미흡	139	2.69±0.65a	44.862* (.000)
	양호	109	3.45±0.57c	
	혼합(미흡+양호)	157	3.11±0.65b	
	전체	405	3.06±0.69	
독서 만족	미흡	139	3.03±0.73a	32.471* (.000)
	양호	109	3.76±0.78c	
	혼합(미흡+양호)	156	3.53±0.72b	
	전체	404	3.42±0.80	
독서 몰입	미흡	139	3.12±0.79a	30.478* (.000)
	양호	109	3.84±0.70c	
	혼합(미흡+양호)	157	3.50±0.67b	
	전체	405	3.46±0.78	
독서 효능감	미흡	139	2.81±0.70a	33.238* (.000)
	양호	109	3.58±0.80c	
	혼합(미흡+양호)	156	3.22±0.73b	
	전체	404	3.17±0.80	

- 1) 5점척도 (1점:전혀그렇지않다, 2점:그렇지않다, 3점:보통이다, 4점: 그렇다, 5점:매우그렇다)
- 2) 같은 열상의 서로 다른 알파벳 a,b는 사후검정(Duncan)에 의해 유의적인 차이가 있음을 의미
- 3) *p<.05

사전 독서지속의지의 경우 미흡집단은 평균 2.69점, 양호집단은 평균 3.45점, 그리고 혼합집단은 평균 3.11점으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양호집단의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F값=44.862, P=.000). 사전 독서만족의 경우 미흡집단은 평균 3.03점, 양호집단

은 평균 3.76점, 혼합집단은 평균 3.53점으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양호집단의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F_{값}=32.471, P=.000$). 사전 독서몰입의 경우 미흡집단은 평균 3.12점, 양호집단은 평균 3.84점, 그리고 혼합집단은 평균 3.50점으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양호집단의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F_{값}=30.478, P=.000$). 사전 독서효능감의 경우 미흡집단은 평균 2.81점, 양호집단은 평균 3.58점, 혼합집단은 평균 3.22점으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양호집단의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F_{값}=33.238, P=.000$). 따라서 연구 집단 간의 독서행동과 독서유효성의 검증 결과는 유의미한 차이는 보였으므로 집단 구성에 따른 신뢰도가 확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 데이터 분석

이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 도구는 독서유효성 측정도구와 독서행동 경험 질문지이다, 독서유효성의 문항의 구성 및 신뢰도는 다음과 같다. 신뢰도는 동일한 검사 또는 동형의 검사를 반복 시행했을 때 개인의 점수가 일관성 있게 나타나는 정도로, 측정도구가 오차 없이 정확하게 추정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Cronbach's α 값이 .6이상이면 신뢰도가 인정된다.

가. 독서유효성 요인별 신뢰도 검증

이 연구에서는 개념적으로 동일한 요인으로 간주되는 문항들을 요인 분석을 통해서 알아본 결과 독서지속의지, 독서만족, 독서몰입, 독서효능감 4가지 하위척도로 분류되었으며,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수정·보완하였다. 문항은 독서지속의지 8문항, 독서만족 8문항, 독서몰입 8문항, 독서효능감 6문항 총 3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독서유효성 검사지의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s α 값은 <표 8>과 같다.

<표 8> 독서유효성 검사지의 신뢰도

요인	설문지 문항	문항 수	신뢰도 (Cronbach's α)
독서지속의지	1, 2, 3, 4, 5, 15, 19, 29	8	$\alpha=.834$
독서만족	6, 7, 8, 13, 14, 20, 21, 24	8	$\alpha=.890$
독서몰입	9, 10, 11, 12, 26, 27, 28, 30	8	$\alpha=.878$
독서효능감	16, 17, 18, 22, 23, 25	6	$\alpha=.859$

분류된 요인별 문항간 신뢰성 검증을 한 결과 $\alpha=.800$ 을 넘어 높은 신뢰도를 보여, 모든 문항들 간에는 신뢰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나. 가설 설정 및 검증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협력적 독서실행이 청소년의 독서유효성 및 독서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고 검증을 실시하였다.

가설 1. 청소년의 자율 협력적 독서실행에 참여하기 전과 참여한 후에는 청소년의 독서유효성(독서지속의지, 독서만족, 독서몰입, 독서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청소년의 자율 협력적 독서실행이 청소년의 독서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독서지속의지, 독서만족, 독서몰입, 독서효능감에 대하여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여 가설을 검증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 협력적 독서실행 여부에 따른 독서유효성 효과 분석

변수		M	SD	t	P
독서지속의지	사전	3.06	0.69	-14.116	.000
	사후	3.56	0.66		
독서만족	사전	3.42	0.80	-14.121	.000
	사후	3.94	0.63		
독서몰입	사전	3.46	0.78	-11.680	.000
	사후	3.91	0.61		
독서효능감	사전	3.17	0.80	-14.030	.000
	사후	3.70	0.69		

1) 5점척도 (1점:전혀 그렇지 않다, 2점:그렇지 않다, 3점:보통이다, 4점:그렇다, 5점:매우 그렇다)
2) *p<.05

독서지속의지의 경우 협력적 독서를 실행하기 전에 비해 평균 0.50점 상승했으며,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14.116, P=.000) 독서만족의 경우에는 협력적 독서를 실행하기 전에 비해 평균 0.52점 상승했으며, 분석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14.121, P=.000) 독서몰입의 경우에도 협력적 독서를 실행하기 전에 비해 평균 0.45점 상승했으며, 분석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11.680, P=.000) 또한 독서효능감의 경우에도 협력적 독서를 실행하기 전에 비해 평균 0.53점 상승했으며,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14.030, P=.000) 따라서 청소년의 자율 협력적 독서실행은 청소년들의 독서유효성 향상에 매우 효과적인 독서활동이라고 파악할 수 있다.

가설 2. 청소년의 협력적 독서실행에 참여하기 전과 참여한 후에는 청소년의 독서행동(독서량, 독서시간, 독서완독률)에 미치는 영향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청소년의 협력적 독서실행에 따른 독서행동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독서량, 독서시간, 독서완독률에 대하여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여 가설을 검증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 협력적 독서실행 여부에 따른 독서행동 효과 분석

변수		M	SD	t	P
독서량 ¹⁾	사전	2.62	1.17	-11.046*	.000
	사후	3.30	1.06		
독서시간 ²⁾	사전	2.24	0.97	-13.653*	.000
	사후	3.10	1.06		
독서완독률 ³⁾	사전	3.18	0.90	-1.705	.089
	사후	3.28	0.77		

- 1) 5점척도 (1점:거의 읽지 않았다, 2점:1권정도, 3점:2권도, 4점:3권정도, 5점:4권이상)
 2) 5점척도 (1점:거의 읽지 않았다, 2점:1~2시간, 3점:3~4시간, 4점:4~5시간, 5점:5시간이상)
 3) 4점척도 (1점:반(50%)도 읽지 못함, 2점:반(50%)정도 읽음, 3점:대체로(80%이상) 끝까지 읽음, 4점:항상 (100%) 끝까지 읽음)
 4) *p<.05

독서량의 경우 협력적 독서를 실행하기 전에 비해 평균 0.68점 상승했으며, 분석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11.046, P=.000$). 독서시간의 경우에도 협력적 독서를 실행하기 전에 비해 평균 0.86점 상승했으며,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13.653, P=.000$). 반면, 독서완독률의 경우 협력적 독서를 실행하기 전에 비해 평균 0.09점 상승했으나, 분석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t=-1.705, P=.089$). 따라서 청소년의 자율 협력적 독서 실행은 청소년들의 독서행동을 상승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독서활동이라고 파악할 수 있다.

가설 3. 집단구성 상태(미흡, 우수, 혼합)에 따라 청소년의 협력적 독서실행이 독서유효성(독서지속의지, 독서만족, 독서몰입, 독서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청소년의 독서량을 기준으로 한 집단구성별로 협력적 독서실행에 따른 독서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여 가설을 검증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표 11> 협력적 독서실행에 따른 집단별 독서유효성 효과 분석

구분			M	SD	t	P
독서 지속 의지	미흡	사전	2.69	0.65	-10.177	.000
		사후	3.34	0.66		
	우수	사전	3.45	0.57	-5.055	.000
		사후	3.72	0.59		
	혼합(미흡+우수)	사전	3.11	0.65	-8.966	.000
		사후	3.63	0.65		
독서 만족	미흡	사전	3.03	0.73	-9.881	.000
		사후	3.70	0.64		
	우수	사전	3.76	0.78	-5.169	.000
		사후	4.10	0.59		
	혼합(미흡+우수)	사전	3.53	0.72	-9.169	.000
		사후	4.05	0.58		

독서 몰입	미흡	사전 사후	3.12 3.75	0.79 0.64	-8.878	.000
	우수	사전 사후	3.84 4.04	0.70 0.54	-2.989	.003
	혼합(미흡+우수)	사전 사후	3.50 3.98	0.67 0.61	-7.996	.000
독서 효능감	미흡	사전 사후	2.81 3.44	0.70 0.68	-10.008	.000
	우수	사전 사후	3.58 3.87	0.80 0.70	-4.869	.000
	혼합(미흡+우수)	사전 사후	3.22 3.81	0.73 0.64	-9.168	.000

1) 5점척도 (1점:전혀 그렇지 않다, 2점:그렇지 않다, 3점:보통이다, 4점:그렇다, 5점:매우 그렇다)

2) * $p < .05$

독서지속의지의 경우 모든 집단이 협력적 독서를 실행하기 전에 비해 실행한 후에 평균점수가 상승했으며, 분석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협력적 독서실행이 독서지속의지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미흡집단 $t = -10.177$, $P = .000$) (양호집단 $t = -5.055$, $P = .000$) (혼합집단 $t = -8.966$, $P = .000$). 독서만족의 경우 모든 집단이 협력적 독서를 실행하기 전에 비해 실행한 후에 평균점수가 상승했으며, 분석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협력적 독서실행이 독서만족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미흡집단 $t = -9.881$, $P = .000$) (양호집단 $t = -5.169$, $P = .000$) (혼합집단 $t = -9.169$, $P = .000$). 독서몰입의 경우 모든 집단이 협력적 독서를 실행하기 전에 비해 실행한 후에 평균점수가 상승했으며, 분석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협력적 독서실행이 독서몰입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미흡집단 $t = -8.878$, $P = .000$) (양호집단 $t = -2.989$, $P = .003$) (혼합집단 $t = -7.996$, $P = .000$). 독서효능감의 경우 모든 집단이 협력적 독서를 실행하기 전에 비해 실행한 후에 평균점수가 상승했으며, 이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협력적 독서실행이 독서효능감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미흡집단 $t = -10.008$, $P = .000$) (양호집단 $t = -4.869$, $P = .000$) (혼합집단 $t = -9.168$, $P = .000$). 따라서 집단별 구성에 따른 자율 협력적 독서실행이 청소년의 독서유효성에 미치는 효과에는 미흡집단이 가장 효과적이며 혼합집단, 양호집단 순으로 효과적이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가설 4. 집단구성 상태(미흡, 우수, 혼합)에 따라 협력적 독서실행이 청소년의 독서행동(독서량, 독서시간, 독서완독률)에 미치는 영향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청소년의 독서량을 기준으로 한 집단구성별로 협력적 독서실행에 따른 독서행동을 검증하기 위해 집단 구성 상태에 따른 독서행동 독서량, 독서시간, 독서완독률에 대한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여 가설을 검증한 결과는 <표 12>와 같다.

〈표 12〉 협력적 독서실행에 따른 집단별 독서행동 효과 분석

		구분		M	SD	t	P
독서량 ¹⁾	미흡	사전	1.81	0.67	-11.535	.000	
		사후	2.99	1.07			
	양호	사전	3.79	0.75	-.349	.727	
사후	3.83	0.90					
독서시간 ²⁾	미흡	사전	1.64	0.60	-12.199	.000	
		사후	2.88	1.10			
	양호	사전	2.86	0.78	-4.296	.000	
사후	3.34	0.92					
독서완독률 ³⁾	미흡	사전	2.91	0.96	-2.267	.025	
		사후	3.15	0.83			
	양호	사전	3.55	0.67	1.196	.235	
사후	3.44	0.68					
		혼합(미흡+양호)	사전	2.32	1.05	-7.535	.000
		사후	3.12	1.08			
		혼합(미흡+양호)	사전	3.17	0.89	-1.229	.221
		사후	3.27	0.75			

N=405

- 1) 5점척도 (1점:거의 읽지 않았다, 2점:1권정도, 3점:2권도, 4점:3권정도, 5점: 4권이상)
- 2) 5점척도 (1점:거의 읽지 않았다, 2점:1~2시간, 3점:3~4시간, 4점:4~5시간, 5점:5시간이상)
- 3) 4점척도 (1점:반(50%)도 읽지 못함, 2점:반(50%)정도 읽음, 3점:대체로(80%이상) 끝까지 읽음, 4점:항상(100%) 끝까지 읽음)
- 4) *p<.05

독서량의 경우 집단 구성이 미흡집단인 경우와 혼합집단인 경우는 협력적 독서실행 전에 비해 실행한 후에 평균점수가 상승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협력적 독서실행이 독서량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미흡집단 $t=-11.535$, $P=.000$)(혼합집단 $t=-7.314$, $P=.000$). 그러나 양호집단의 경우 협력적 독서실행하기 전에 비해 실행한 후에 평균 점수는 상승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양호 집단 $t=-.349$, $P=.727$). 독서시간의 경우 모든 집단이 협력적 독서실행 전에 비해 후에 평균 점수가 상승했으며, 분석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협력적 독서실행이 독서시간의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미흡집단 $t=-12.199$, $P=.000$)(양호집단 $t=-4.296$, $P=.000$)(혼합집단 $t=-7.535$, $P=.000$). 독서완독률의 경우 집단 구성이 미흡집단인 경우에는 협력적 독서실행 전에 비해 후에 평균점수가 상승하였으며,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협력적 독서실행이 독서완독률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미흡집단 $t=-2.267$, $P=.025$). 그러나 양호집단의 경우 협력적 독서실행 전에 비해 후에 평균점수가 하락하였으며, 혼합집단의 경우 평균 점수는 상승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양호집단과 혼합집단의 경우 협력적 독서실행이 독서완독률 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양호집단 $t=1.196$, $P=.235$)(혼합집단

t=-1.229, P=.221). 따라서 집단별 구성에 따른 자율 협력적 독서실행이 청소년의 독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는 미흡집단이 가장 효과적이며 혼합집단, 양호집단 순으로 효과적이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가설 5. 독서유효성 변화와 독서행동의 변화에는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독서유효성 변화와 독서행동 사이의 상관관계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협력적 독서실행에서의 독서행동(독서량, 독서시간, 독서완독률)과 독서유효성 항목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가 <표 13>과 같다.

<표 13> 독서유효성과 독서행동 요인별간의 상관관계 결과

구분	N=405					
	사전 독서량	사전 독서시간	사전 완독률	사후 독서량	사후 독서시간	사후 완독률
독서지속의지	.279**	.226**	.192**	.203**	.108*	.267**
독서만족	.273**	.188**	.174**	.187**	.097	.238**
독서몰입	.260**	.171**	.182**	.159**	.086	.185**
독서효능감	.332**	.267**	.235**	.215**	.148**	.232**

1) *p<.05, **p<.01

독서지속의지의 경우 협력적 독서실행 전에 실시한 사전 독서량, 사전 독서시간, 사전 독서완독률과 정적으로 유의미한 약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협력적 독서실행 후에 실시한 사후 독서량, 사후 독서시간, 사후 독서완독률과도 정적으로 유의미한 약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독서만족의 경우 협력적 독서실행 전에 실시한 사전 독서량, 사전 독서시간, 사전 독서완독률과 정적으로 유의미한 약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협력적 독서실행 후에 실시한 사후 독서량, 사후 독서완독률과도 정적으로 유의미한 약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독서몰입의 경우 협력적 독서실행 전에 실시한 사전 독서량, 사전 독서시간, 사전 독서완독률과 정적으로 유의미한 약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협력적 독서실행 후에 실시한 사후 독서량, 사후 독서완독률과도 정적으로 유의미한 약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독서효능감의 경우 협력적 독서실행 전에 실시한 사전 독서량, 사전 독서시간, 사전 독서완독률과 정적으로 유의미한 약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협력적 독서실행 후에 실시한 사후 독서량, 사후 독서시간, 사후 독서완독률과도 정적으로 유의미한 약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독서유효성의 변화는 독서행동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다. 집단별 청소년들에게 나타난 독서행동 변화

1) 독서량 만족도

독서행동의 긍정적인 변화에 따라 모든 집단의 구성원들이 독서행동 변화 중 자신의 독서량 만족도가 긍정적으로 향상되었다. 이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표 14>, <표 15>와 같다.

<표 14> 자신의 독서량 만족도 사전 결과

N=404

	독서상태			전체	$\chi^2(p)$ / F값(p)
	미흡	양호	혼합 (미흡+양호)		
	139(34.41)	109(26.98)	156(38.61)	404(100.00)	
전혀 그렇지 않다	33(23.74)	5(4.59)	18(11.54)	56(13.86)	71.343* (.000)
그렇지 않다	48(34.53)	16(14.68)	47(30.13)	111(27.48)	
보통이다	49(35.25)	37(33.94)	58(37.18)	144(35.64)	
그렇다	7(5.04)	36(33.03)	26(16.67)	69(17.08)	
매우 그렇다	2(1.44)	15(13.76)	7(4.49)	24(5.94)	
M±SD	2.26±0.93 ^a	3.37±1.04 ^c	2.72±1.02 ^b	2.74±1.08	37.886* (.000)

협력적 독서실행에 참여하기 전의 자신의 독서량 만족도를 집단별로 살펴보면, 미흡집단은 ‘보통이다’가 35.2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그렇지 않다’ 34.53%, ‘전혀 그렇지 않다’가 23.74% 순으로 나타났다. 양호집단은 ‘보통이다’가 33.9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그렇다’가 33.03%, ‘그렇지 않다’가 14.68% 순으로 나타났다. 혼합집단은 ‘보통이다’가 37.1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그렇지 않다’가 30.13%, ‘그렇다’가 16.67% 순으로 나타났다. 독서상태에 따른 교차분석 결과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hi^2=71.343$, $p<.000$) Likert 5점 척도에 의한 독서상태에 따른 독서량 만족도에 대한 일원배치 분산분석에서는 독서상태가 미흡집단은 평균 2.26점으로 가장 낮았고, 양호집단은 평균 3.3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혼합집단은 평균 2.72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스스로 책을 충분히 읽는지에 대한 독서량 만족도에서는 양호집단이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미흡집단이 가장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는 Duncan사후 검증 결과 독서상태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F<37.886$, $p=.000$)

<표 15> 자신의 독서량 만족도 사후 결과

N=404

구 분	독서상태			전체	$\chi^2(p)$ / F값(p)
	미흡	우수	혼합 (미흡+우수)		
	139(34.32)	109(26.91)	157(38.77)	405(100.00)	
전혀 그렇지 않다	7(5.04)	3(2.75)	4(2.55)	14(3.46)	20.457* (.009)
그렇지 않다	30(21.58)	15(13.76)	32(20.38)	77(19.01)	
보통이다	71(51.08)	40(36.70)	65(41.40)	176(43.46)	
그렇다	24(17.27)	31(28.44)	39(24.84)	94(23.21)	
매우 그렇다	7(5.04)	20(18.35)	17(10.83)	44(10.86)	
M±SD	2.96±0.89 ^a	3.46±1.03 ^c	3.21±0.97 ^b	3.19±0.98	8.351* (.000)

협력적 독서실행 참여 후의 미흡집단은 ‘보통이다’가 51.0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그렇지 않다’ 21.58%, ‘전혀 그렇지 않다’가 17.27% 순으로 나타났다. 양호집단은 ‘보통이다’가 36.7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그렇다’가 28.44%, ‘매우 그렇다’가 18.35% 순으로 나타났다. 혼합집단 ‘보통이다’가 41.4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그렇다’가 24.84%, ‘그렇지 않다’가 20.38% 순으로 나타났다. 독서상태에 따른 교차분석 결과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20.457$, $p값=.009$). Likert 5점 척도에 의한 독서상태에 따른 자신의 독서상태 인식에 대한 일원배치 분산분석에서는 미흡집단은 평균 2.96점으로 가장 낮았고, 양호집단은 평균 3.46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혼합집단은 평균 3.21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스스로 책을 충분히 읽는지에 대한 자신의 독서상태 인식에서는 양호집단이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미흡집단이 가장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는 Duncan사후 검증 결과 독서상태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값=8.351$, $p=.000$).

2) 협력적 독서실행의 지속 여부

친구들과 함께하는 협력적 독서실행을 앞으로도 계속하고 싶은지에 대하여 독서상태에 따른 교차분석을 실시하고 유의성 검증을 한 결과가 <표 16>과 같다.

<표 16> 지속 여부

	독서상태			전체	$\chi^2(p)$
	미흡	양호	혼합		
			(미흡+양호)		
	139(34.32)	109(26.91)	157(38.77)	405(100.00)	
네	136(97.84)	103(94.50)	152(96.82)	391(96.54)	2.107
아니오	3(2.16)	6(5.50)	5(3.18)	14(3.46)	(.349)

1) * $p<.05$

집단별로 살펴보면, 미흡집단은 97.84%, 양호집단은 94.50%, 혼합집단은 96.82%가 다음에도 협력적 독서활동에 참여하고 싶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chi^2=2.107$, $p값=.349$). ‘네’로 답한 이유로는 즐거워서, 재미있어서, 다양한 책을 읽을 수 있어서, 친구와 함께 같은 책을 읽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책 친구를 만날 수 있어서 등으로 나타났다. ‘아니오’에 답한 이유로는 대체로 졸업, 진학 준비, 학업 집중 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의 협력적 독서활동의 모형은 청소년의 독서에 높은 만족도를 주었으며 긍정적인 정서를 높여주었다고 볼 수 있다.

Ⅵ.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친구들과 함께하는 독서의 즐거움을 통해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독서행동을 촉진 시키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함께 읽기의 기본적인 개념을 토대로 청소년의 자율 협력적 독서실행의 모형을 제시하고 전국 8개 지역, 61개 중·고등학교의 68개 독서클럽을 선정하여 청소년 405명을 대상으로 4개월 동안 진행하였다.

협력적 독서실행이 청소년들의 독서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본 결과, 자발적인 독서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독서유효성에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들은 협력적 독서실행을 통해 자발적으로 책임기를 실천함으로써 독서량과 독서시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보였고 독서완독률은 미미한 점수로 향상되었다. 이러한 독서유효성과 독서행동 변화는 서로 관련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청소년의 협력적 독서실행 모형을 통해 나타난 청소년의 자발적인 독서행동과 관련된 긍정적 변화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협력적 독서실행에서의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책을 선정하는 기회 제공은 청소년들의 다양한 도서에 대한 흥미와 도서선정 방식을 확대시켜 주었으며, 청소년들은 함께 읽기 도서 선정과정에서 나타나는 협력적 도서 추천활동이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한 달에 한 권의 함께 읽기가 청소년들의 독서량을 증가시켰고 청소년 자신의 독서에 대한 만족도를 상승시켰다. 특히 거의 책을 읽지 않았던 미흡집단의 청소년들이 책 읽기를 행동에 옮겼다는 점과 모든 집단의 청소년 대부분이 독서활동을 즐겁게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책이야기 나누기의 기회 제공은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독서를 실천하도록 이끌어 주었다. 청소년의 독서행동 변화 중 하나는 학교의 정해진 독서시간이외도 틈틈이 책을 읽는 시간이 향상되었다는 점이다.

넷째, 학교 밖의 독서활동은 청소년들의 독서의 흥미와 즐거움을 확대시켜 주었다. 청소년들은 학교 밖의 독서활동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며 즐겁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 분석에 따라 이 연구가 주는 교육적 시사점과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독서행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발달적 특징을 고려한 독서환경 제공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청소년의 독서교육에서는 교사의 직접적인 독서 지도보다는 또래 친구들과 함께하는 자율적인 독서환경 제공이 필요하며, 이러한 독서환경은 학교 밖으로 확대시켜 연결해 줄 때 더욱 효과적이라는 점을 밝혀주었다.

둘째, 이 연구에서 제시한 협력적 독서실행 모형은 학교의 독서가 학습으로서의 개인적인 차원에서 벗어나 사회문화적 차원으로 확장시켜 주었다. 이제는 청소년의 독서가 혼자서 책

을 읽는 활동이 아니라 함께 읽는 활동으로서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

셋째, 이 연구에서 제시된 모형은 교사가 학생들의 즐거운 독서 환경을 조성해 줄 수 있도록 학교 또는 기타 기관의 지원이 있을 때 가능한 독서활동이다. 결과적으로 청소년의 협력적 독서에는 교사들이 환경을 조성해 줄 수 있는 여건 마련이 필요하며 이에 관련하여 효과적인 지원 방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이 연구는 짧은 기간 동안 양적인 연구를 토대로 전반적인 효과를 검증하였으나, 학생들의 독서활동은 단기간, 계량적 성과를 측정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점들이 많다. 따라서 협력적 독서실행은 맥락적 요인들에 의해 청소년들은 다양한 양상을 보일 수 있으므로 장기간 동안 다양한 연구 방법과 세부화된 연구 내용으로 진행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강미. 2010. 『모둠독서활동의 개념과 수업 연구에 관한 이론적 고찰』.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성일. 1996. 글 이해과정에서 흥미의 역할. 『한국심리학회지: 실험 및 인지』, 8(2): 273-301.
- 류보라. 2012. 『청소년 독자의 문식성 실행과 정체성 구성 연구』.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문화체육관광부. 2015. 『국민독서 실태조사』. 세종: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 2012. 『전국독서동아리실태조사』. 세종: 문화체육관광부.
- 박영민. 2007. 중학생 읽기 동기의 구성 요인. 『한국독서학회: 독서연구』, 16: 297-334.
- 박지예. 2017. 『2016년 책톡!900 독서클럽 (초등) 사업평가 연구보고서』. 경기도: (재)도서문화재단씨앗.
- 백혜선. 2013. 『독서토의에서의 협력적 의미 구성 양상 연구』.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안영이. 2010. 『독서동아리활동이 중학생의 읽기 동기와 독해력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병기. 2015. 자기결정성 동기 이론에 의한 독서동기 측정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9(3): 311-332.
- 이선영. 2008. 『모둠 독서활동을 통한 독서능력 및 태도 향상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순영. 2006. 독서동기와 몰입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이론적 고찰. 『한국독서학회: 독서연구』, 16: 359-382.
- 정대근. 2014. 『청소년의 독서 유효성 영향 요인 연구』. 박사학위 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 정옥년. 2007. 독자의 정의적 영역과 독자의 발달. 『한국독서학회: 독서연구』, 17: 139-181.

- 최인자. 2006. 청소년 문학 경험의 질적 이해를 위한 독서 맥락의 탐구—학교에서의 다양한 문식적 클럽들을 중심으로. 『한국독서학회: 독서연구』, 16: 163-197.
- 하시모토 다케시. 2012. 『슬로리딩』. 서울: 조선북스.
- Bintz, W. P. 1993. Resistant readers in secondary education: Some insights and implications. *Journal of Reading*, 36: 604-615.
- Davila, D. & Patrick, L. 2010. Asking the Experts: What Children Have to Say about Their Reading Preferences. *Language Arts*, 87(3): 199-210.
- McKenna, M. C. Kear, D. J. & Ellsworth. R. A. 1995. Children Attitude Toward Reading: A National Survey. *Reading Research Quarterly*, 30(4): 934-956.
- Vygotsky, L. S. 1978. *Mind in society: The development of higher psychological procese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Wigfield, A. Guthrie, J. & McGough, K. 1996. *Questionnaire Measure of Children's Motivations for Reading*. College Park, MD: National Reading Research Center.
- Wikipedia Cooperation Home page. <<https://simple.wikipedia.org>> [sited 2017. 6.].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Kang, mi. 2010. *A study on the Concept of Reading Activity and Study on Teaching Research*. M. A. thesis. Korea University, Korea.
- Sung, Il Kim. 1996. "The Role of Interest in Text Comprehension." *Korean Journal of Cognitive and Biological Psychology*, 8(2): 273-301.
- Ryu, Bo Ra. 2012. *Study on adolescent readers' literacy practices and the construction of identity*. Ph. D. diss. Korea University, Korea.
-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2. *Survey on Reading Club*. Sejong: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5. *Survey on National Reading*. Sejong: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 Park, Young Min. 2007. "The Reading Motivators of the Secondary Students." *Journal of reading research*, 16: 297-334.
- Park, Ji Ye. 2017. *Booktalk! 900 Reading Club (Elementary) Project Evaluation Study in 2016*. Kyunggido: Book Culture Foundation Seart.
- Paik, Hye Sun. 2013. *study on collaborative meaning construction in book discussion*.

- Ph. D. diss. Korea University, Korea.
- An, Youn Yi. 2010. *The middle School reading club activities' impact on the reading motivation and comprehension*. M. A. thesis. Pusan University, Korea.
- Lee, Byeong Ki. 2015. "A study on the Measurement Tool Development of Reading Motivation Using Self-determination Theory."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9(3): 311-332.
- Lee, Sun Young. 2008. *Study on reading ability and attitude improvement through group reading activities*. M.A. thesis. Korea University, Korea.
- Lee, Soon Young. 2006. "A Theoretical Review on the Factors Affecting Motivation and Engagement in Reading." *Journal of reading research*, 16: 359-382.
- Jeong, Dae Keun. 2014.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Adolescent' Reading Effectiveness*. Ph. D. diss. Chonnam University, Korea.
- Jung, Ok Ryun. 2007. "The Affective Domain of Reading and the Development of Readers." *Journal of reading research*, 17: 139-180.
- Choi, In Ja. 2006. "A study on the Reading Motivation Improvement Using Self-Selected Reading Program." *Journal of reading research*, 16: 163-197.
- Hashimoto Takeshi. 2012. *Slow Reading*. Seoul: Chosun Books.